전국사찰 백중기도 입재…시민들은 연꽃으로 힐링

6월 25일 기도입재…7~8월 연꽃축제 개최

송지희 · 노덕현 기자

조계사 · 봉은사 등 연꽃장엄
백중 49재 기도도 함께 진행

〈화엄경 탐현기〉에서는 연꽃이 향(香) · 결(潔) · 청(淸) · 정(淨)의 네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보살이 앉아있는 자리를 연꽃으로 만들어 연화좌 또는 연대라고 부르는 것도 번뇌와 고통과 더러움으로 뒤덮여 있는 사바세계에서 고결하고 청정함을 잃지 않는 연꽃의 속성을 비유한 것이다. 동시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위한 목련존자의 효심을 담은 상징이기도 하여 백중기간 연꽃축제가 함께 열린다.

백중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연꽃축제가 펼쳐진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찰을 찾지 못했던 불자들의 발걸음도 더없이 가벼워 지고 있다.

가장 먼저 연꽃축제를 연 곳은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주지 원명)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혔던 산문을 활짝 연 의미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연꽃축제'로 이름 붙여졌다. 6월 22일 개막에 이어 6월 25일 백중기도 입재가 이뤄졌다.

주지 원명 스님은 백중입재 법문에서 "나와 나의 부모, 가까운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물코처럼 촘촘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과 법칙"이라며 백중 49일 기도와 7 · 7재 천도재 이유를 밝혔다.

6월 26일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일요법회에 법사로 나서 '효'에 대해 설했다. 범해 스님은 "인간은 모두 부모님이 생명을 넘겨줌으로써 태어나게 되고 탄생과 동시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며 "항상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고 심지어 현생의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 전생을 거쳐 오며 만난 전생의 부모들의 은혜도 생각하며 공양을 행하고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중기도와 함께 사찰을 찾은 이들은 연꽃 장엄을 보며 잠시 삶의 어려움을 잊었다.


한국불교 1번지인 서울 조계사는 6월 25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백중 49재 기도 입재와 함께 하안거 연꽃축제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를 개막했다.

봉은사 백중기도는 8월 12일 7재까지 매주 금요일 49일간 진행되며, 연꽃축제는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한국불교 1번지인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25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백중 49재 기도 입재와 함께 하안거 연꽃축제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를 개막했다. 백중기도 입재법회가 진행된 이날 조계사 앞마당은 연꽃을 품은 화분으로 가득했다.

한낮 뜨거운 태양빛에도 불자와 시민들은 푸른 연잎과 분홍빛 봉오리를 감상하며 화분 하나하나가 이어진 연꽃 법계도를 따라 걷는 방식으로 여름을 알리는 연꽃 향연을 만끽했다. 개막식은 연꽃 이운으로 시작됐다. 부처님 전에서 연꽃 법계도 중앙의 연꽃부처님께로 이운된 수련은 주지 지현 스님을 거쳐 연꽃부처님이 안치된 수중연화대에 봉안됐다.

지현 스님은 "부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나투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을 설하며 일곱걸음 걸으셨고 그 한발한발에 연꽃이 피어났다"며 "또한 연꽃은 혼탁한 진흙에서 맑은 꽃을 피워내 청정과 정화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연잎은 비가 오면 자신이 받을 만큼만 받고 그 이상이 모이면 비워낸다. 욕심을 내어 이상의 물을 담아내면 대궁이 꺾이게 된다"며 "우리 대중들도 욕심과 탐욕, 시기와 질투를 비울 줄 아는 연의 이러한 지혜를 배워나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사 연꽃축제는 8월까지 이어진다.

연꽃으로 유명한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도 6월 25일 백중 49재에 입재했다. 봉선사는 7월 23일 제20회 연꽃축제를 연다. 연꽃축제날에는 글짓기 · 그림그리기 대회도 유치부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신촌 봉원사(주지 원허)도 8월 12일 백중법회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연꽃축제는 개화시기에 맞춰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단일 연꽃축제로는 최대규모인 회산백련지 무안군은 7월 21~24일 코로나 기간 비대면으로 진행된 무안연꽃축제를 대면으로 진행한다. 부여군 또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여서동공원 궁남지 일원에서 제20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연다.

법화종, 교구 · 분한 구제안 다룰 중앙종회 개회

6월 27일 제107차 임시회 개원
정식 총무원장 체제서 첫 종회
7월 6일까지 10일 회기로 진행
종단기틀 강화할 다수안건 논의


법화종 중앙종회는 6월 27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제107차 임시회를 개회했다.

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이 오랜 종단 혼란으로 위축된 지역교구를 활성화하고, 분한이 상실된 종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입법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는 기존 교구종회의원 선출기준인 50개 사찰을 25개 사찰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과 종도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논의할 임시회를 개회했다.

법화종 중앙종회(의장 서안)는 6월 27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제107차 임시회를 개회하고 7월 4일까지 10일 회기로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20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 체제의 정식 총무원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린 종회라는 점에서, 종단 발전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입법발의됐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의 애종심이 종단 정상화에 큰 힘이 됐다"며 "이번 종회는 종도들을 구제하고 종단이 진정한 의미의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안건에 대한 건강한 토의와 원만한 진행을 통해 종단이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07차 임시회는 재적인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했다. 개회를 선언한 중앙종회의장 서안 스님은 "이번 종회는 상당히 뜻 깊고도 무거운 자리"라며 "총무원장 관효 스님의 배려로 청사 4층에 중앙종회의원실이 개소했고, 종단의 향방을 좌우할 일부개정안과 각종 법안을 다뤄야 하는 임시회가 10일간 이어진다. 지혜를 모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자"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 일부개정의 건, 종법 일부개정이 건, 특별법 제정의 건, 종무질의의 건, 각 교구 대중공사 동참의 건, 안정사 되찾기 결의문 채택의 건, 기타안건 등을 다룬다.

개회 첫날 첫 안건으로는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지만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 일부개정의 건이 상정됐다. 종헌 제6장 중앙종회 항목의 제26조 종의회의원 선출 기준과 제28조 임시회 소집에 대한 기준을 종단 현실에 맞게 변경하자는 취지다.

회의결과 종헌의 기준은 25개 사암으로 하되 20대 중앙종회가 구성된 후 종법에서 세부사항을 다루는 방안을 단서조항으로 가결했다.

제28조는 '의원 3명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기존 조항을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소집한다'로 수정해 최종 통과했다. 연관법으로 종헌 제10장 교구종무원 항목의 제51조의 50개 사암을 25개 사암으로 수정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대전=송지희 기자

불교사회硏, 6년 성과 담은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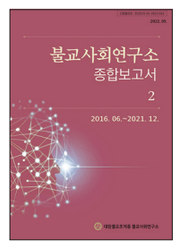
2016~2021년 성과물 집약
"불교적 가치 사회적 실현"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가 최근 6년간 진행한 각종 연구 성과물을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최근 발간된 '불교사회연구소 종합보고서2〈사진〉'(이하 종합보고서2)는 2016년 발간한 '불교사회연구소 5주년 종합보고서'에 이어 2016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연구 성과물을 집약한 것이다. 종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연구된 성과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잊히거나 혹은 중복으로 연구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자와 종책수립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추진될 각종 연구 지표로 삼기 위해 제작됐다.

보고서는 제1부는 주요활동, 제2부는 주요 연구성과, 제3부는 불교사회연구소 발전방향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국사회 불평등과 종교의 역할 연구' 등 23건 연구 성과물과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등 25건의 단행본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돼 눈길을 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주요 성과에 대해 △종책분야로 중장기 전략과제 측면에서의 과제 △사회분야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보편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연구 △교과서 분야를 특화해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과제와 분야 개척 △호국불교문화는 '현대사회와 불교'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종단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종책을 생산하고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1회 반려동물·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동물을 '가족'이나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펫미족(Pet+Me)'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산 이듬해부터 '동식물 천도재'를 올리고 있는 환경본찰(環境本刹) 강릉 현덕사가 '제1회 반려동물·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 못지않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의 잊지 못할 교감 순간, 함께 나누고픈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이별 순간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만들고 나눈 사랑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법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지 현 종

주제 및 형식 반려동물과 식물과 관련된 글이면 주제, 형식 모두 무관
분 량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한글포인트 10, A4용지 2매 내외) ※반려동물 및 식물 사진(사진 3장 이내)
지원자격 반려동물과 식물을 사랑하는 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기간 2022년 7월 1일 ~ 8월 31일 까지
접 수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hj569569@gmail.com)
수상자 발표 2022년 9월 20일(현덕사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 연락)
시 상 식 2022년 10월 15일(토) 오전 11시 현덕사 '동·식물 천도재'에서 함께 진행
시 상 대상(1명,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1명, 상금 70만원), 우수상(2명, 상금 50만원씩), 장려상(3명, 상금 10만원씩)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특별부상으로 '반려동물 천도재' 무료 봉행 예정

※ 현덕사는 수상작품으로 책 제작, 전시, 영상 제작 등으로 향후 활용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 덕 사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삼산리, 현덕사) 문의 (033)661-5878 www.hyundeoksa.or.kr

